

푸드마켓 이용자 月 1399명 전국 최고

이용자 90% “서비스 만족”... 식생활개선에 도움

‘사랑나눔 푸드마켓’ 이용자가 지난 1년간 총 1만 6785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월 평균 이용인원이 1399명으로 같은 시기 문을 연 다른 지역 푸드마켓 월 이용인원 427명에 비해 갑절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평균 63명이 푸드마켓을 이용한 셈이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사랑나눔 푸드마켓’ 개점 1주년(6월 17일)을 맞아 발간한 운영보고서에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 191명, 기업체 및 단체 76개소를 통해 총 3억826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받아 1만 6785명에게 2억18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후원금 또한 4940여만 원을 모금해 푸드마켓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물품구입비로 사용하고 있다.

푸드마켓 전체 이용자 중 80%가 여성으로 남성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푸드마켓 이용자 10명 중 9명은 제주시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서귀포시민이 접근성 등의 이유로 인해 푸드마켓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다.

푸드마켓 이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품목은 ▲쌀, 고추장, 육류와 같은 식재료(36%)로 조사됐으며 ▲밥, 라면과 같은 주식류(27%) ▲



음료, 과자 등의 간식류(23%)가 뒤를 이었다.

푸드마켓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4%가 식비 절감에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90%는 푸드마켓 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해 푸드마켓 원래 취지인 식생활 개선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응답자는 현재보다 물품 지원량이 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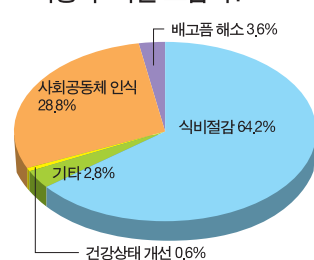
자원봉사자들 또한 푸드마켓 운영활성화를 위해 힘을 보탰다. 지난 1년간 660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기부

물품 포장, 매장정리, 이용자 안내 등의 자원봉사활동을 펼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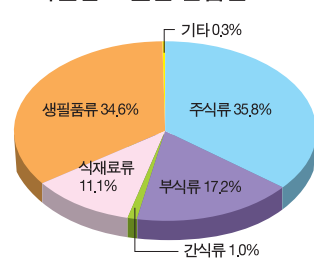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앞으로도 주변 어려운 이웃들에게 후원자들의 사랑을 더욱 열심히 전달하겠다”고 각오를 밝힌 뒤 “그러나 ‘사랑나눔 푸드마켓’을 운영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주도민에게 푸드마켓 후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푸드마켓 운영현황 자료와 1년간의 운영실적, 이용자 설문조사, 자원봉사자 활동 수기 등이 담겼다.

■ 이용 후 어떤 도움이?



■ 지원받고 싶은 물품은?



농촌사랑 꽃 나눔 협약

제주협의회-제주농협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와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상오)는 6월 28일 제주시 도남동 농촌사랑 꽃 시범포에서 농촌사랑 꽃 나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제주농협은 이날 일일초 3만분을 노인·장애인시설 등에서 원예치료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에 전달했다.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시설 생활인과 이용자들의 심리정서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농협으로부터 제공받은 일일초를 사회복지시설에 무료로 분양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제주농협이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아름다운 제주만들기 사업의 일환이다.

지면소개

- 종합 2 · 3면
희망키움동장 호응
시설 탐방-제주아어도지역자활센터
- 사회복지소식 4 · 5면
두지봉 한가족·소식마당
시각장애인 텃밭가꾸기
- 오피니언 6면
칼럼·시론·기고
- 특집 7면
지역사회복지계획(안)공청회



豊寅建設株式會社

代表理事 金 信 외 임직원 일동

濟州市 蓮洞 446番地 풍인빌딩 4層
TEL : 064) 747-1610(代) FAX : 064) 747-1611

“미래의 터전을 닦고·꿨고 세우는 건설사업 豊寅建設(株)가 책임집니다.”

희망키움통장으로 자립희망 키워요

2차 모집 결과 114명 신청...목돈 기대감 등 영향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자금 마련과 빈곤 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5월 희망키움통장 사업 2차 신청자 모집을 실시한 결과 114명이 신청, 1차 접수 26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본인 저축액에 대한 매칭금과 장려금 지원으로 3년 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해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원대상의 폭을 확대하고 신청서류와 지원절차 등을 간소화하는 등 사업지침을 변경하고, 자격조건이 되는 가구

를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홍보를 한 점도 신청자 증가의 한 요인으로 꼽고 있다.

1차 모집 당시 최근 3개월간 가구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가구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2차 모집에서는 신청 당시 소득으로 변경하고, 추가로 자활특례, 의료 및 교육급여 특례자가 있는 가구, 시설 수급가구 중 소득요건이 충족하는 가구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금융채 무불이행자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희망키움통장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3년간 본인이 저축액

(5만원 또는 10만원)을 결정해 매월 저축하면 매월 매칭금과 근로소득장려금이 지원된다.

그러나 연속 3회 이상 저축액을 불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도 해지되며, 탈수급 이전에 중도 해지하면 본인 적립금과 이자는 지급되지만 적립된 근로소득장려금과 매칭액은 지급되지 않는다.

제주도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은 저소득층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여서 추가 모집 시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대상자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소득기준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 가구에서 60% 이상인 가구로 완화했다.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개원식에 참석한 인사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제주시 아라동에 도립노인요양원 개원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제주특별자치도립노인요양원 개원식이 6월 18일 열렸다. 30억6800만원이 투입돼 지난 3월에 완공된 제주도립노인요양원은 지하 1층, 지상 2층, 전체 면적 2037㎡에 80병상 규모로 요양실, 물리치료실, 진료실

등을 갖추고 있다.

중풍,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으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뒤 이용할 수 있다.

입원비 또는 치료비의 20%는 본인 부담이며,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제주도, '양성평등정책' 우수기관 선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양성평등정책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제주도는 여성가족부가 전국 298개 기관을 대상으로 2009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를 종합평가한 결과 중앙 4개, 광역 3개, 기초 2개 기관과 함께 우수기관으로 뽑혔다고 밝혔다. 제주도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수 추진과제로 뽑힌 내용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제주시 구도심 재생사업 ▲복스타트 운동 ▲살기

좋은 지역민들기 사업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을 통한 공동체 형성 등이다.

특히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성 인지도 예산 편성, 사업설계 시 여성 등 약자의 안전을 고려한 태양광 조명등 설치, 편의를 고려해 원터 정자의 높이를 낮게 조정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성별영향평가 추진과제 종합평가는 2005년부터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여성가족부에서 해마다 실시하고 있다.

외환다문화가정대상 우수상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종범)이 외환은행 나눔재단에서 실시한 제2회 외환다문화가정대상에서 행복도움상 단체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서부종합사회복지관은 다문화가정의 지지자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사회에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 다문화사회 활성화를 도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일반가정과 다르게 나타나는 문제점과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일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외환은행 나눔재단은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05년 12월 금융권 최초로 설립된 자선공익재단이다.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소아·아동 암환자 의료비를 최고 30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백혈병은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아동 암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상향 지원돼 환자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든 전망이다.

지원 대상자는 18세 미만(199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으로 월 소득이 408만 9000원(4인 기준) 이하다.

지원 범위는 건강보험 법정 본인부담 의료비 회귀 의약품

구입비,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암치료 필수 치료재료대(인공뼈, 인공안구, 인공삼입물, 제대혈 등),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에 따른 가발 구입비 등이다.

2010년 진료비영수증을 지참해 관할 보건소로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는 올해 8억2600여 만원을 확보해 지금까지 1120여만원을 지원했다.

한편 도내에 등록된 환자는 110명(백혈병 59명, 소아암 51명)이다.

서귀포시축협 성금 600만원 기탁

서귀포시축협(조합장 송봉섭)은 6월 16일 성금 600만원을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에 달라며 제주 사랑의 열매(회장 박찬식)에 기탁했다.

이 성금은 제주농협인아름다운기부문화운동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부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서귀포시축협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적립한 금액이다.

송봉섭 조합장은 “축협 임직원들이 기부문화 확산에 동참



하고자 실시일반으로 성금모금에 참여했고 내 고장에서 아름다운 기부문화가 확산돼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이 전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라복지관, 아동 건강한 성장 돕는 야간보호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은 2007년 12월부터 저소득 가정 중 야간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 15명을 대상으로 야간보호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라복지관은 방임아동의 예방 및 기본생활 지원을 위해 저녁식사를 제공하고, 보호자가 아동을 데리고 귀가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복지관 차량을 이용해 안전한 귀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제주대학교 봉사동아리 '보통사람들'과 연계해 기초학

제지도와 기초학습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민요(강사 진순애), 요가(강사 오진숙) 등 특별활동 프로그램과 분기별로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해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과 자아 존중감이 향상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아라복지관은 이 사업을 통해 보호·교육서비스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우면서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아동과 보호자로부터 호응이 높다고 밝혔다.



사회복지협의회 2010년 5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 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내역
재가결연후원	860,000	860,000
난치병환아후원	60,000	0
자원봉사후원	1,110,000	1,110,000
복지사업후원	1,700,000	523,810
푸드마켓후원	1,961,000	1,517,080

* 후원자님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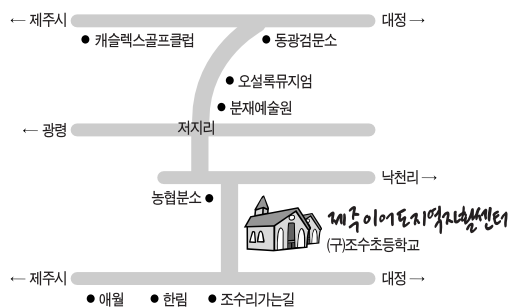
시설탐방

(32) 제주아어도지역자활센터

제주의 역사가 바람이면 제주인의 역사는 돌담의 역사입니다.
세찬 비바람 속에서도 보리가 자라고 유채꽃이 필 수 있었던 것은
돌담이 어린 씨앗을 꼭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울타리나 벽이 되지 않고
낮으나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는 돌담
제주아어도지역자활센터는 낮은 사람들의 돌담입니다.
우리 함께 가는 돌담길은 따스한 햇살 내리는 봄날까지
꼬불꼬불 이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외롭지 않은 사회를 꿈꾼다

일할 의욕과 능력은 있으나 실업, 기술, 자금부족 등의 이유로 일할 기회를 찾기 어려운 지역의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과 능력개발,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연대로 사람이 외롭지 않은 사회, 외롭지 않은 자활사업을 위해 노력하는 시설, 제주아어도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효철)를 찾았다.



제주아어도지역자활센터(이하 센터)는 2004년 4월 (사)한림소망의 집을 모 법인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복제주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돼 문을 연 뒤 2007년 현재 명칭으로 바뀌어 운영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활특례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역과 주민의 특성에 맞는 각종 자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센터는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옛 조수초등학교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주시 노형동에 제2의 사무실을 열어 제주시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6월 현재 120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보면 ▲자활공동체사업으로 늘푸른 집(집수리), 사랑나눔간병회, 함께하는 밥상(급식), 산모도우미, 노인돌보미, 로하스 제주다드림(전통차·건강식사) ▲자활근로사업으로 길벗드림(특수교육보조원), 꿈드림(아동돌봄), 사랑드림(무료병원간병), 모다드림(친환경영농), 제주다드림(야생초차 제조), 그린터드림(생태체험·관광) ▲사회서비스사업(노인, 산모, 가사간병 바우처) 등이 있다.

이 중 모다드림 사업단은 친환경 영농기술로 농작물 재배기술 습득, 자활·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농약 농산물, 녹차, 묘목재배 및 나무화분 등 목공예품을 생산하고 있다.

특히 제주다드림 사업단이



“불평등계층 자활 위해 지속적 관심 필요”

생산하는 ‘제주 다드림 야생초 차’는 보건복지부 주관 일하는 저소득층이 만든 자활상품 홍보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브랜드 명인 ‘굿스 굿스(좋은 사람 좋은 상품)’의 시제품에 선정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친환경 무농약 녹차와 야생차(조릿대, 꾸지뽕, 속야생들국화 차) 등을 직접 채취해 전통 수제차 제조기술을 습득,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 이 사업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용담해안도로에 찾집 ‘제주다드림’도 운영하고 있다.

또 그린터드림사업단에서는 생태문화학교와 꽃자왈·

오름·습지체험 등 체험학습 및 관광서비스 교육·훈련을 통한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등 지역특성을 살린 사업에도 주력하고 있다.

김효철 센터장은 “소외받는 불평등계층의 자활을 위해 지자체와 자활기관, 사회복지 관계자 및 지역문제를 고민하는 NGO 등의 협력체계를 통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친환경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바탕으로 지역의 특색과 장점을 살린 운영을 통해 좀 더 나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순옥 명예기자〉

노인고용촉진장려금 노인 취업 ‘한 몫’

만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는 업체에 지원하는 고용촉진장려금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82개 업체에 1억3300만원의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1개 업체에 1억200만원을 지원한 것과 비교해 업체 수는 11개 업체, 지원액은 31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인력 채용 규모도 지난해 126명에서 올해 148명으로 늘었다.

연도별 지원현황을 보면 최초 시행연도인 2007년 32개 업체 57명에 1억원, 2008년 57개 업체 94명에 1억9600만원, 지난해 86개 업체 154명에 2억8200만원 등이다.

취업 유형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30곳에 56명으로 가장 많고 주유소 21곳 33명, 관광지 및 문화시설 8곳 14명 등이다.

노인고용촉진장려금은 노인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제주도가 2007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을 2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업체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최소 1일 4시간 이상, 월 15일 이상 근무하고 월 50만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5명까지 지원된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제주본부 홈페이지 구축

제주특별자치도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임신과 출산, 육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아이낳기 좋은세상 제주운동본부 홈페이지 제작을 추진하고 있다.

홈페이지 주소는 jejuworld. 소개마당과 사업마당, 정보마당, 참여마당 등으로 구성해 쌍방향 소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소개마당에서는 제주운동본부 소개, 주요활동내용,

조직도, 참여단체소개 등을, 사업마당에서는 참여단체의 중점사업을 비롯해 단체별 활동상황, 아이사랑 행복카드 등을 소개한다.

정보마당은 새소식, 임신·출산·육아시책 소개, 포토갤러리, 영상자료와 법령자료, 통계자료 등으로 꾸민다. 참여마당은 운동본부에 바란다, 사이버 정책제안, 설문조사, 자유게시판 등으로 구성된다.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복이 와요’ 오래전 코미디 프로그램 제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가 4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한 웃음코칭교육을 받으면서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며 떠나질 않았다. 처음에 웃음코칭교육을 신청할 때는 그저 내 업무와 관련해서 ‘내 능력을 향상시켜보자’였다. 하지만 교육 첫날의 느낌은 단비였다.

교육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시작됐다. 낮잠을 즐기시는 분들이나 유독 졸곤증에 시달리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시간은 정말이지 달콤한 잠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려워 10분만이라도 차안에서 눈을 부치고 싶은 시간이다. 그래서 내심 혹시 졸다가 모처럼 참가한 교육에서 망신만 당하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했다. 하지만 그건 기우였을 뿐 교육 내내 많이 웃고 떠들다보니 2시간의 교육시간이 10분 정도로만 느껴지고 내용도 머리에 쏙 들어오고 정말이지 내가 기대하고 기다리던 교육이었다.

교육을 받고 집으로 돌아갈 때면 차 안에서 혼자 싱글벙글 웃게 되고 다음



원 유 정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주에 있을 교육을 기다리게 되었다. 나는 확장시절 개그맨을 능가할(?) 만큼 위트 있고 우스개 소리도 많이 알고 있어 주변에 친구들이 항상 많이 있었다. 하지만 세월이, 또 체면이 나를 잘 웃지도 못하고 이야기도 잘 못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왔지만 웃음코칭교육을 통해 다시 젊어지는 것 같고 자꾸 웃다 보니 건강해 지는 기분이다.

잘 웃으면 건강해지고 젊어지고 날씬해지고 이뻐지고 복도 받는다는데 못 웃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돈 한 톨 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리 행복하게 잘 웃어서 모두 모두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함께 걷고 함께 노래하며 사랑을 나눠요!

제주애덕의집 가족관계 구축 프로그램 '두지붕 한가족'

‘가족의 소중함’, 현대사회로 올수록 잊고 살지만 한편으로 그 소중함이 더욱 절실해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고 효율만 중시되는 사회에서 가족의 소중함이란 말은 점점 잊혀지고 있는 현실이다.

모두들 말로는 사회복지를 외치지만 정작 그 복지의 가장 큰 부분을 채워주는 가정의 역할이 점점 파괴되는 사회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에 반해 제주애덕의집은 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이 따뜻한 가족애를 느끼는데 초점을 둔 가족관계 구축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두지붕 한가족'.

지난 4년간 애덕의집에서 추진해 온 청소년가족봉사단은 사춘기 방황하는 청소년들이 부모님과 함께 시설에서 봉사 체험 및 장애인과의 가족결연을 통해 보람과 감사함을 느끼게 하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그

동안 애덕의집에서 중요한 봉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사랑의 열매 지원 사업으로 선정돼 단순한 봉사의 차원을 넘어 장애인과 청소년가족봉사단의 관계가 진정한 가족으로 발전 되는데 초점을 뒀다.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진행중이다.

예전 일상생활지원에 그쳤던 가족봉사단의 활동이 이제는 오름등반, 댄스스포츠, 텃밭 가꾸기, 노래교실, 자전거 타기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함께 참여하면서 좀 더 체계적이며 활력있는 봉사활동으로 이어져 장애인과 결연가족의 관계가 돈독해지는데 목표를 두고 격주로 토요일에 진행되고 있다.

노래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우중훈씨는 "미약한 재능을 나눌 수 있는 것에 감사함을 느낀다"며 "인간이 이뤄낸 어떠한 결과물에 대해 자만하지 않고 함께 나눈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며, 누군가에게 무언가



를 베푼다는 생각보다도 항상 더 값진 선물을 얻고 간다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유영순 사회복지사는 "모든 프로그램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다수의 봉사자와 생활인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에 처음엔 부담감을 가졌지만 차차 체계가 잡히며 모두들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낀다"며 "특히 봉사자가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아 가며 적극적으로 생

활인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에 앞으로 더욱 기대가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했다.

제주애덕의집은 현재 모든 생활인을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가족관계 구축 프로그램을 사례관리와 연계해 생활재활교사가 일일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결연가족의 손을 통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도 구상 중이다.

〈김용성 명예기자〉



비행기타고 배타고 도외나들이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6월 3일부터 2박3일간 시설 입소자 및 인솔교사, 보호자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여행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이들은 남이섬, 창덕궁, 신록사, 와우정사, 이천 도자기박물관 등을 방문해 지역별 특색에 맞는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체험했다.

매년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그룹과 여행지를 상담을 통해 선정한 뒤 여행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송죽원은 1차 도외여행에 이어 2차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



서구자원봉사센터 등과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신상순)는 6월 16일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5층 중회의실에서 대구서구자원봉사센터(센터장 박준원), 달성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신희옥)와 간담회를 갖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소개와 정보를 교환했다.



제주종합복지관 '난꿈이 있어요'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경운호)은 6월 9일 더불어숲지역아동센터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Holland진로탐색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회기에는 진로계획의 필요성과 다양한 직업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직업빙고게임을 통해 소집단활동을 실시했다.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은 지역 사회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방과후 주로 이용하고 있으나 한정된 지원으로 인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실시해 소외계층의 자녀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식/마/당

김광신씨, 사랑의집에 승용차 기증



성심원 사랑의집 측탁의 김광신(가정의학과 전문의)씨는 6월 1일 장애인들의 이동에 반드시 필요한 클릭 승용차를 구입, 성심원 사랑의 집(원장 김호성)에 기증했다. 김광신씨는 사랑의집과 측탁의 진료계약을 맺고 주 1회 사랑의 집 생활인들의 건강을 위한 진료활동을 펼치고 있다.

도장애인복지관-동제주복지관업무협약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이동한)과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경희)은 6월 16일 제주도장애인복지관 북부본관에서 농어촌지역 아동 순회진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농어촌지역 아동의 사회·교육·심리적 상황을 빠르게 진단해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교육 및 치료적 접근 등을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아가의집 작은 음악회 개최



혜정원 아가의집(원장 고용성)은 5월 27일 제주산업정보대학에서 복지행정과 학생들과 작은 음악회를 열었다.

작은 음악회는 제주 사랑의 열매 지원으로 중증 지적장애인들의 자기표현 능력과 자아 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번에는 중간발표회의 성격을 지녔다.

노인학대인식 캠페인 실시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김선희)은 6월 15일 동문로터리 분수대에서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 기념 사진전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노인학대 신고인식조사 및 이동상담, 효도서약서 및 엽서쓰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 이번 행사를 통해 도민들에게 노인학대에 관한 사회적 인식 확산 및 노인학대예방 메시지를 전달했다.

가롤로의 집 봄소풍



가롤로의 집 식구들과 직원들은 5월 21일 따사로운 햇살을 받으며 봄소풍을 다녀왔다.

가롤로의 집 가족들은 코끼리랜드·허브랜드 관람과 보물찾기, 장기자랑 등을 통해 시설 내 환경에서 벗어나 자연을 체험하고 서로 유대관계를 높이는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주민 대상 무료 균형벨트운동 실시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영숙)은 제주시의 지원을 받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균형벨트운동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

벨트를 이용한 스트레칭 운동인 균형벨트운동은 척추 등의 골격을 바르게 잡아주고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으며, 매주 화·목·금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2시간동안 운영되고 있다.

텃밭가꾸니 즐거움이 새록새록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은 복지관의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텃밭을 가꾸고 있다.

땅을 일구고, 밭고랑을 만들어 지난 4월 상추, 고추, 오이, 수박, 참외 등 채소와 과일 씨앗을 뿌렸다.

그리고 마침내 지난 6월 처음으로 상추를 수확했다. 상추를 따는 손놀림 하나 하나에는 정성이 가득했다.

시각장애 1급 문승태씨는 “텃밭 가꾸기를 통해 다시금 흙의 소중함, 노동의 가치와 기다림의 의미 등을 깨닫게 됐다”며 “가족들과 삼겹살 파티를 해야겠다”며 환한 미소를 지었다.

“한 마리 두 마리 찾아오는 벌레들이 채소 잎을 조금씩 갉아먹어 좀 속상하지만 우리의 텃밭을 완전히 망치는 정도는 아니어서 괜찮다”고 말하는 김관영씨(시각장애 3급)에게서는 텃밭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느꼈다.

오애자씨(시각장애 1급)는 “내가 심은 씨앗 하나가 이렇게 큰 수확의 기쁨을 전해줄 줄



은 몰랐다”며 집에 가서 씹을 싸 먹으며 손수 딴 상추를 자에게 한아름 챙겨줬다.

순간 취재를 나서기 전, 시각장애인들이 앞이 잘 안 보이는데 어떻게 텃밭을 일구어 낼지 반신반의 했던 내 자신이 부끄러워졌다.

그들은 너무나 능숙한 손놀림으로 농작물을 돌보고 있었고 무엇보다 풀 한 뿌리의 생명이라도 소중히 다루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기르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 소통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었다.

양경순 사회복지사는 “건강

상의 문제, 이동의 불편함 등으로 인해 다양한 야외 일상활동에서 소외받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사회적 증진과 야외 일상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고 느껴 본 사업을 기획했다”며 “유기농이라 건강을 챙길 수도 있고 무엇보다 시각장애인과 직원들간에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다”고 말했다.

7월과 8월에는 수박과 참외, 방울토마토, 애호박, 고추, 오이 등을 수확할 예정이다.

〈양정선 명예기자〉



전국 최초 지역아동센터 야구단 공식 출범 제일지역아동센터 제일드래곤즈

전국 지역아동센터 최초로 제주에서 야구단이 공식 출범했다.

제일지역아동센터는 지난해 복권기금 등의 후원을 받아 야구장비를 마련하고 ‘제일드래곤즈’ 창단식을 가진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사회복지관련 단체들의 도움으로 유니폼을 장만하고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다.

어린이 20명으로 구성된 제일드래곤즈 야구단은 주 1회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며 야구를 통해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가고 있다.



2010 어르신나들이 행사

은성종합사회복지관은 6월 3일 은성경로대학 어르신 73명을 모시고 2010 어르신 나들이 행사를 가져 서귀포 서커스월드와 송악산 드라마 촬영장 등을 방문했다.

이번 행사는 농협중앙회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출장소와 우리마트 신제주점이 후원했다.



제주양로원 도외 ‘孝’ 나들이

제주양로원은 가정의 달을 맞아 2박3일 일정으로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 13명을 모시고 전라남도 해남, 순천, 구례지역으로 도외 ‘孝’ 나들이를 다녀왔다.

어르신들은 섬진강 기차마을에서 관광용 증기기차를 타고, 화순 도곡 스파랜드에서 온천욕을 즐기는 등 이색체험을 통해 문화적 욕구를 해소했으며, 어르신간 가족의 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전국 최초 지역아동센터 야구단 공식 출범 제일지역아동센터 제일드래곤즈

전국 지역아동센터 최초로 제주에서 야구단이 공식 출범했다.

제일지역아동센터는 지난해 복권기금 등의 후원을 받아 야구장비를 마련하고 ‘제일드래곤즈’ 창단식을 가진데 이어 지난 5월에는

사회복지관련 단체들의 도움으로 유니폼을 장만하고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다.

어린이 20명으로 구성된 제일드래곤즈 야구단은 주 1회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며 야구를 통해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가고 있다.

주사랑소규모요양원 개원식 및 원장취임식

주사랑소규모요양원은 6월 13일 각계 기관 및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 및 원장(한영희) 취임식을 가졌다.

주사랑소규모요양원은 재단법인 애월교회(담임목사 배수옥) 부설기관으로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섬기는 다기능 시설로써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맞춰 건립된 시설이다.



지난해 2월 개원해 입소, 단기보호, 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고유의 사업을 정비, 이번에 원장 취임식과 함께 개원식을 개최했다.

알/림/마/당

■ 너와내가함께 만드는 호호(好好)학교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운영)은 서귀포시교육청(교육장 한성국)의 2010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 제주 산남지역 취약계층아동 역량강화 종합지원 프로젝트 ‘너와 내가 함께 만드는 호호(好好)학교’ 사업을 서귀포시 초등학교에서 이달부터 실시한다.

이 사업은 오는 10월까지 산남지역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자존감 및 공동체 의식 향상 프로그램, 심리·정서지원 프로그램, 위기대처능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 사업을 통해 산남지역 취약계층 아동의 낮은 자아존중감과 사회성을 높이고 심리·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지속적인 서비스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과 가족의 역량을 강화하고 아동에게 최적의 성장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23일부터 제주평화배 전국 장애인 수영페스티벌

제4회 제주평화배 전국 장애인 수영페스티벌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린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를 위한 축제의 장을 마련해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스포츠 활동 참여를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마련과 장애인 체육 발전을 위해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수영연맹이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수영연맹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24일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500여명이 참가하는 ‘생활체육 어울림 바다수영대회’가 신양해수욕장에서 열린다. 경기는 초등부 50m, 학생부 100m, 일반부 200m로 나뉘어 진행된다.

25일에는 한라수영장에서 ‘전국 장애인 수영대회’가 열린다. 35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각 종목별로 장애유형과 연령대에 따라 구분해 일반수영대회와 동일하게 치러진다.

부대행사로 ‘제주해변 페스티벌’이 함께 열려 좌식비치발리볼, 제주테마가 있는 모래조각상 만들기, 바디페인팅 대회, 스킨스쿠버 등 다채로운 체험활동이 운영된다.

문의=732-2352~4.

일배움터, 장애인 정원관리사 양성

장애인보호작업장 일배움터(원장 최영열)는 교육과학기술부와 평생교육진흥원이 지원하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한라대학이 운영하는 장애인 정원관리사 양성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의 특성에 맞게 원예사업장 현장 위주의 교육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조경 관리의 기초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장애인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장애인 정원관리사를 양성한다.

지적·자폐성장애인을 중심



으로 장애인 20명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21일까지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교육 수료 후 수료증을 받게 되며, 일배움터는 지역사회 사업체에 일반고용을 유도해 장애인직업재활을 도모한다.

“식품으로 사랑을 전하세요”



6월 식품 기탁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 2ℓ 1800개, 감귤주스 150ml 1000개 ▲(주)금강축산유통=육류 288kg ▲서문식품=두부 384모 ▲김치원=김치 60kg ▲세계평화의섬교회는=쌀 67kg ▲중앙유통=채소류 500kg ▲싱싱부식=김치 60kg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반찬류 140kg ▲양하나=생필품류 14개 ▲현민철=라면 8상자 ▲강희은=김치 11kg ▲원석철=상추 5kg ▲고용범=김 3상자

칼럼

또 하나의 권력과 현실참여



김 범 훈
제주일보본설실장

수경 스님(61)은 서울 화계사 주지로 불교환경운동 상임대표를 맡아왔다. 서해안 갯벌을 살려달라며 전북 새만금에서 서울까지 삼보일배를 했다. 최근엔 4대강 사업 반대운동을 벌여왔다. 어느새 불교계 환경운동의 상징이 되었다.

그런 스님이 지난 6월 중순 ‘다시 길을 떠나며’라는 짧은 글을 남기고 홀연히 떠났다.

현실과 정치 분리할 수 없어

스님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난다. 먼저 화계사 주지 자리부터 내놓는다. 조계종 승적도 내놓는다. 얼마가 될지 모르는 남은 인생은 초심으로 돌아가 진솔하게 살고 싶다”고 밝혔다. 스님은 “환경운동이나 NGO단체에 관여

하면서 모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한 시절을 보냈다. 비록 정치 권력과 대척점에 서기는 했지만, 그것도 하나의 권력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회고했다. 또 스님은 “초심 확인 시절 어른 스님으로부터 ‘대접받는 중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지금 그런 중노릇을 하고 있다”고 탄식했다.

하지만 범인으로서 스님의 속내를 알기가 무척 혼란스럽다. 다만 스님은 5월 31일 경북 군위군 지보사에 머무르던 문수 스님이 ‘4대강 사업 반대’ 등의 유지를 남기고 소신(燒身) 공양한 사실에 커다란 충격을 받고는 ‘부끄럽다’고 토로했다.

그 후 스님은 환경운동도 또 하나의 권력이고, 대접받는 중노릇하면서 스스로를 속이는 위선적인 삶을 이어갈 수 없다며 먼 길을 떠난 것이다.

하지만 생명과 파괴의 삼질은 멈춰지지 않기에 스님의 떠난 자리가 너무도 깊고 넓다. 아무튼 이번 일은 새삼 성직자의 초심과 현실참여 문제를 돌아보게 한다.

동서고금을 통해 변함없는 진리는 초심을 잃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대접받는 자리에 있거나 돈이 있다 보면 초심을 잃어버리

는 경우가 허다하다. 심지어 존경을 받는 성직자일지라도 시선이 남을 바라볼 때는 권력으로 변질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수경 스님이 권력을 토로한 것은 매우 신선하게 다가온다.

사회적 약자 위한 현실참여 필요

그동안 우리사회엔 종교인은 정치에 조언해야 한다는 통념이 자리해왔다. 특히 종교인들의 현실참여엔 부정적 편견들이 많았다.

하지만 현실과 정치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다. 가장 비극한 예로 쓰레기 처리문제만 해도 실생활 정치와 직결된다. 어느 것 하나 정치와 무관한 현실이 없다. 해서 수경 스님은 일부 사회적 편견에 호통을 쳤다. “세상이 난국인데 종교는 왜 있어야 하는지, 성직자가 왜 있어야 하는지 참답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성직자로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현실참여를 적극 독려한 것이다.

결국은 소통과 배려의 문제다.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제적 부와 남을 바라보는 시선, 즉 권력이 아니다.

세상의 아픔을 온전히 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웃과 만생명과 더불어 사는 삶이다.

시론

복지예산에 대한 정책전환 필요



한 영 조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사무처장

복지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복지재정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다. 사회가 다양화하고 복잡해지면서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다. 그만큼 복지재정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복지서비스는 복지재정 지원여부에 따라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은 제주도도 마찬가지다. 재정분권화에 따른 국가지원 복지예산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 복지서비스 수요는 더욱 늘어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를 비롯해 아동, 장애 등 수요층이 다양해지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 발전과 복지사회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현실이다.

투입 예산만큼 복지서비스 효과 높여야

실제 제주도의 사회복지예산 비중을 보면 본예산 일반회계의 17%에 이르고 있다. 2010년 본예산 2조7천억 원 가운데 사회복지예산은 16.86%인 4676억 원 규모이다. 2007년 이후 3년간 복지예산 추이를 보더라도 2007년에는 3945억 원(17.1%), 2008년에는 3915억 원(15.9%), 2009년에는 16.3%인 4382억 원이 편성, 운영됐다.

물론 이 같은 복지예산 규모는 지난 2006년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던 22%까지 달성하는 데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규모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올해 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우근민 제주도지사도 사회복지예산비율을 장기적으로 20~25%로 상향하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한 예산 확보는 선심성 사업예산을 축소하는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만약 우지사 공약대로 사회복지예산 비율을 최소 20%까지 높일 경우에는 2010년 제주도 예산기준으로 어렵잡아도 1000억 원이 늘어나게 된다. 25%까지 그 비율을 높일 경우에는 2300억 원 정도의 재정이 확보돼야 한다.

더욱이 제주도 재정이 녹록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재정보로는 그리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자립도를 보면 2009년 기준 24.9%로 갈수록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채무액 역시 급증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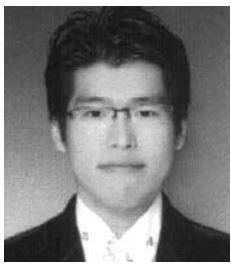
특히 이 같은 공약은 복지수요에 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업이나 미래 수요예측연구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운용됐던 복지예산 규모를 기준으로 얼마를 더 확보하겠다는 총량적 개념에서 제시된 복지예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운영돼 왔던 제주도 복지예산정책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즉 복지예산 역시 선심성 정책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보니 내실 있는 복지예산 운영과 관리정책은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 뿐만 아니라 복지예산운영에 있어서 불합리한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제는 투입한 복지예산만큼 복지서비스 효과도 높여야 한다.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이고 그로 인한 효율성이 나타나야 한다. 구체적인 관리대책이나 중장기 수요정책을 통한 맞춤형 예산운용이 이뤄져야 한다. 복지중심의 제주지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수요분석을 통한 복지재정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기고

푸드마켓에서 배우는 ‘사랑나눔’



고 대 청
사랑나눔푸드마켓

푸드마켓 오픈 ‘사랑의 식품을 이웃과 함께’, 수놓음 미덕 살리는 ‘푸드마켓’ 개장, 아름다운 식품나눔장터 ‘푸드마켓’, ‘사랑나눔 푸드마켓’ 어려운 이들에게 문 활짝 열다!

지난해 6월 ‘사랑나눔 푸드마켓’의 개장을 알리는 기사의 제목들이다. 이처럼 수많은 언론매체에선 연신 푸드마켓에 대한 기대감을 쏟아냈다. 그러나 뜨거운 관심과 기대 속에 문을 연 푸드마켓은 개장 3개월 만에 기부물품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운영난을 겪으며 폐장위기에 놓였다.

육지에 비해 큰 기업체가 거의 없다시피 한 제주에서 ‘푸드마켓

을 운영해 나간다는 것 자체가 모험’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많이 있었다. 더구나 전 국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온몸으로 느끼던 시기라 더더욱 그러했다. 그래서 폐장 위기라는 그림자가 드리웠을 때도 당연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네들의 생각은 이내 무너져 버렸다. 도민들의 나눔살전이 시작된 것이다.

기업들의 생산품 기부와 후원금 기부가 줄을 이었으며, 가가호호 모아 두었던 세탁세제와 주방세제 등을 들고 나와 푸드마켓을 찾았고, 동창회와 부녀회에서 푸드마켓에 후원하겠다고 뜻을 밝히는 일도 많아졌다. 그렇게 모인 사랑의 정성들이 모여 2009년 9월 이후 기부물품 환가액 1억3천여만원, 후원금액만 4천여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개장 3개월 만에 폐장위기에 놓였던 푸드마켓이 1주년을 맞았다. 이렇게 첫 돌을 맞을 수 있는 것은 역시 도민들의 관심과 애정 덕분이다. 푸드마켓 첫 돌은 제주도민의 마음속에서 이어져 온 수놓음 정신과 만복합량 정신을 21

세기에 다시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물품기부만이 아니다. 매장 앞에 물품들이 진열되기까지 뒤에 애써주신 분들이 계셨다. 바로 자원봉사자 분들이다. 지난 1년 동안 푸드마켓을 찾아 물품 포장에서부터 진열, 정리, 이용자 안내까지 애써주신 분들이 660명에 달했다.

이렇듯 푸드마켓은 도민들의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지금까지 원활히 운영되고 있다. ‘사랑나눔 푸드마켓’이라는 이름 그대로 나누는 사랑으로 커가고 있는 푸드마켓인 것이다.

나누는 사랑으로 커가는 것은 푸드마켓 뿐만이 아닌 것 같다. 우리네 마음도 함께 커가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푸드마켓’이라는 공간을 통해 ‘사랑나눔’을 배우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나누는 사랑은 희망을 낳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 그 사랑은 다시 행복이 되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이다.

2010년, 우리는 ‘사랑나눔 푸드마켓’에서 나에게 다시 돌아올 희망과 행복의 씨앗을 심고 있다.

제2기 제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안) 시민공청회

세계 속의 제주, 따스한 복지공동체 제주시

제주시와 제주시지역사회 복지협의회(위원장 고경운)는 6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삼다수홀에서 시민공청회를 통해 제2기(2011~2014) 지역사회복지계획(안)을 발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제2기 제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안) 시민공청회가 6월 22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삼다수홀에서 열렸다.

이번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안)은 연구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해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라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 위원들의 직접 참여에 의해 수립됐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양성평등(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사회복지담당자 등 총 1399명을 대상으로 기초육구조사를 실시했으며, 이 기초조사를 토대로 지역사회복지계획(안)이 수립됐다.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안)은 ▲사회복지인력 역량 강화 ▲협력·참여의 복지공동체 구현 ▲따뜻한 체감형 복지제주 실현을 위해 공통 목표와 사업부문별 목표로 구분해 기본방향이 설정됐다.

영유아 및 아동부문은 저출산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돼 출산문제해결을 위한 대안들이 제시됐으며, 청소년부문은 진로문제와 여가문화활동에 초점을 맞췄다. 양성평등(여성)부문은 양성평등의식에 대한 부분과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부분이, 노인부문은 일자리 창출과 선진장묘문화를 위한 화장문화 홍보강화에, 장애인부문은 장애인복지인프라 개선 및 구축과 장벽없는 지역환경 조성 등에 초점을 뒀다. 지역사회복지부문은 저소득주민 자활·자립기반 조성 등에, 연계협력부문은 실무협의체 중심 기능강화 및 운영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고 계획이 수립됐다.

특히 이번 계획(안)은 기존의 지역사회복지계획과는 달리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내용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할 뿐만

제주시·제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회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안) 수립

외부 전문기관 용역발주 아닌 실무협의체·실무분과 위원 직접 참여 협력·참여의 복지공동체 구현 및 따뜻한 체감형 복지제주 실현 주력

아니라 매년 수립하는 연차별 지역사회복지계획에서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한 능동적 입장에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수립된 지역사회복지계획(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됐으며, 제주도는 각 행정시별로 수립된 계획(안)을 수정 보완해 보건복지부에 최종 제출한다.

다음은 사업부문별 비전과 목적, 세부목표.

영유아·아동복지부문

‘GOOD-I(아이 좋은) 도시 만들기’를 비전으로 설정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과 영유아·아동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통한 부모 양육부담 해소를 목적으로 0~5세아 무상보육 실시, 다자녀 할인카드 발급, 저소득 아동 무료교통카드 발급, 어린이와 함께하는 다문화사회 교육 사업 등 총 8개 세부목표를 수립했다.

청소년복지부문

‘미래의 희망, 창의적 청소년 육성’을 비전으로 설정해

청소년육성 역량강화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 청소년들의 다양한 적성 개발 및 창의적 활동 지원, 그리고 취약청소년을 위한 복지 통합지원체제 구축을 목적으로 청소년복지서비스 제공기관 및 종사자 네트워크 강화, 공공기관과 협력체결을 통한 청소년활동 지원시스템 구축, 전인적 성장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등 총 12개 세부목표를 수립했다.

양성평등(여성)부문

‘폭력 Zero, 양성평등의 행복한 제주시, 희망 가득한 다문화가정’을 비전으로 설정해 양성평등 사회를 위한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강화, 여성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그리고 다문화가정 제주시회 안정적 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여성직업재활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및 문화교육강좌 개설 운영 등 총 7개 세부목표를 수립했다.

노인복지부문

‘노인일자리 창출 및 제주형 선진장묘문화 정착’을 비전으로 설정해 중·장기적 노

인일자리 창출, 복지시책 확대를 통한 노인생활여건 개선, 그리고 제주형 선진장묘문화 정착을 목적으로 민간부분 노인일자리 확대, 저소득노인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별 거점실버센터(경로당) 지정 운영 등 총 12개 세부목표를 수립했다.

장애인복지부문

‘장애인 행복 PLUS 도시 제주’를 비전으로 설정해 장애인복지인프라 개선 및 구축, 장애인 소득보장 및 직업재활 활성화,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삶의 질 향상, 장벽 없는 환경만들기를 목적으로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설치, 저상버스 확대,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등 총 18개 세부목표를 수립했다.



△남진열 책임연구원(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 지역사회복지계획(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지역사회복지부문

‘안심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복지, 주민 모두가 행복한 지역공동체 건설’을 비전으로 설정해 저소득 주민 기초생활보장 수준 향상을 통한 ‘따뜻한 복지’ 실현과 저소득 주민 자활·자립 기반 조성을 통한 빈곤 탈출 지원을 목적으로 저소득주민 복지지원 강화와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 자활·자립 경로 다변화 등 총 9개 세부목표를 수립했다.

연계협력부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기능 강화로 효과적인 민·관 연계협력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설정해 협의체 운영 근거 마련 및 운영비 단계적 증액, 실무협의체와 실무분과 중심 기능운영 강화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그리고 제주형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을 목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화, 자원봉사 활성화 및 지역 나눔공동체 조성 등 총 10개 세부목표를 수립했다.

‘사랑나눔푸드마켓’ 이 개장 1주년을 맞았습니다.

‘사랑나눔 푸드마켓’ 에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협의회 임직원들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정성어린 사랑의 마음을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소중히 전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체 및 단체 후원자

(주)일구오공
고내촌
고천농산
국수마당
국제컨테이너
금강축산유통
금호타이어제주판매대리점
기분좋은축산마트
김만덕기념사업회
김치원
농협중앙회 제주도청지점
대흘표고
동광성당 빈첸시오
라이온스클럽 제5지역
명도암관광휴양목장
산방미곡
서귀포농협
서문식품

선아농장
영락교회
오름물산
일도2동 새마을부녀회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
작은세상봉사단
정우식품
제다농수산
제주과량
제주나누리 라이온스클럽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15기 동창회
제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총동창회
제주동부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제주민속식품
제주산업정보대학 한꿈레오
제주시 공원녹지와
제주시 및 읍면동사무소직원
제주시청

제주신용협동조합
제주오렌지
제주웰빙양계(영)
제주은행
제주은행 시청점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제주제과
제주종합식품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시설연합회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슈퍼마켓협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특별자치도청 존샘봉사회
제주한라포크
제주MBC

주식회사 효월
청룡수산
탐라상사
푸른영농조합법인
풍인건설(주)
한국마사회 제주경마본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부
한국전력공사 제주특별지사
한라라이온스클럽
한라산오가피
한라산청정촌
한라일보 독자위원회
한아름축산마트
해담은어린이집
헤어림산지가공
E도시가스
KT제주마케팅단

개인 후원자

강정림
강길호
강맹자
강명숙
강문정
강미경
강수남
강순실
강승향
강영복
강옥자
강유심
강윤자
강정자
강창인
강태훈
강현영
강효정
고경수

고경아
고경완
고경운
고두성
고명희
고미현
고병기
고승희
고용범
고유신
고은정
고이석
고정희
고춘매
고치환
고현수
고호준
김금순
김남근

김남길
김대영
김동수
김동철
김동환
김두만
김명수
김명옥
김미경
김미리
김미자
김미향
김복철
김봉룡
김분희
김상현
김선자
김선희
김성건

김성대
김성부
김소연
김수정
김양자
김연경
김영피
김영성
김옥순
김원삼
김은양
김은진
김인숙
김재홍
김정수
김정호
김종완
김지경
김지훈

김창섭
김춘옥
김현
김현아
김효심
김희숙
나명숙
문경림
문기훈
문시병
문영섭
문익순
문재원
박강란
박강엽
박광숙
박성홍
박천광
손효익

송순열
송연심
송임권
송창선
송호철
안성희
양복실
양석훈
양순희
양애자
양윤정
양은희
양제윤
양진희
양창언
양홍석
오경숙
오만순
오승란

오승의
오승진
오애순
오양선
오은숙
오창석
원성훈
유봉순
윤경숙
윤순덕
윤앵아
윤정숙
이동한
이명구
이미향
이상주
이선희
이선희

이시찬
이영진
이예원
이은숙
이정숙
이정화
이태엽
이현정
임경아
임경희
임문범
임부훈
임애춘
임양자
임이랑
장승남
장승련
장윤정
장은숙

장화자
전금숙
정금옥
정명효
정미숙
정지현
정현숙
정혜진
조길화
조명숙
조정희
조현경
지경찬
천갑순
최막동
최호만
한경미
한미숙
한영희

한옥녀
한윤향
함복희
허경미
허미화
허연정
허은영
허진
현미화
현민철
현성부
현성요
현영심
홍경선
홍나나
홍성희
홍원우
황재옥

“사랑의식품을 이웃과 함께” 나눔을 키우는 행복한 세상